

1

2024. 12. 29. 오후 1 시, 송년예배,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설교: 임동진

본문: 잠언 Proverbs 3:11-13

제목: (송년 예배) 사랑하시는 자녀를 꾸짖으시는
하나님

설교 시간 35 분, 11 쪽: 7~17

(표준새번역) 3:11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ESV) 3:11 My son, do not despise the Lord's
discipline or be weary of his reproof,

3:12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3:12 for the Lord reproveth him whom he loves, as
a father the son in whom he delights.

3:13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3:13 Blessed is the one who finds wisdom, and the
one who gets understanding,

도입: 좋은 잔소리, 유익한 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는 1 절 후렴, 2 절 후렴, 3 절 후렴, 4 절 후렴, 도돌이. 거의 무한 반복이 됩니다. 같은 말을 계속하시는 것도 듣기 힘들었지만, 제가 그 잔소리를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싫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회초리를 자녀 양육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자녀 양육에 사용하는 책망, 교훈, 잔소리, 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은 잔소리가 있고, 유익한 벌(징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잔소리, 유익한 벌(징계)는 좋은 결과보다 ‘사랑’의 과정, ‘사랑’의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잔소리(책망), 벌(징계) 없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죄성을 압니다. 53 년간 겪어온

저는 고통 없이 욕망을 포기한 적이 없고, 두려움 없이 악한 행동과 생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스캇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지금의 욕망과 고통을 내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인격의 성숙이라고 말하며,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 좋아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인 문제와 중독에 빠지고, 사회적으로는 범법자가 되거나 낙오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훈육’(Discipline)입니다.

사람 부모의 훈육(꾸짚음과 징계)에는 사랑으로 한다고 했지만, 상처만 남기도 하고, 분노가 서리기도 하고, 서러움이 묻어나기도 하고, 자기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보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훈육은 다릅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를 꾸짖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훈육(꾸짖음, 징계, 교훈, 책망)은
 ‘사랑’으로 시작해서(동기), 사랑의 방법으로 전달되고,
 사랑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일 4:8 절.

(표준새번역) 요한일서 4: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ESV) 1 John 4:8 Anyon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간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것이 사랑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눈빛이
 사랑이며, 하나님의 입김이 사랑이며,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징계하신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바꾸면,

✓ 꾸짖고 징계해서라도 바로 세우시는 사랑

본문 12 절,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꾸짖고 징계하는 것을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표준새번역) 3:12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ESV) 3:12 for the Lord reproves him whom he loves, as a father the son in whom he delights.

삼하 7:14 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¹. 물론 하나님의 매와 채찍은 사랑입니다.

(개역개정) 사무엘하 7: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ESV) 2 Samuel 7:14 I will be to him a father, and he shall be to me a son. When he commits iniquity, I will discipline him with the rod of men, with the stripes of the sons of men,

¹ 이 구절은 다윗 가문의 왕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또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주의 자녀)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표준새번역) 히브리서 12:6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ESV) Hebrews 12:6 For the Lord disciplines the one he loves, and chastises every son whom he receives."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훈육(discipline)하시고,
꾸짖으시고, 다듬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 절,
견디라고 말합니다. 나를 훈육(discipline)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뭘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표준새번역) 히브리서 12:7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ESV) Hebrews 12:7 It is for discipline that you have to endure. God is treating you as sons. For what son is there whom his father does not discipline?

잠 13:24 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지런히 훈계하십니다.

(표준새번역)잠언 13:24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ESV) Proverbs 13:24 Whoever spares the rod hates his son, but he who loves him is diligent to discipline him.

여러분의 자녀, 형제, 친구가 펜타닐에 손을 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잘한다, 멋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아닙니다. 친구 아닙니다. 사랑하면 잔소리하고, 뜯어 말리고, 때려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으신다면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꾸지람 듣고, 벌받고 징계를 받으면 정말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하고, 자존심도 상할 겁니다. 하나님께 빠질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파하지 말라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벌받아 아픈 순간에도 감사할 만큼의 신앙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들을 때에도 이것 한가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꾸짖으시고 바로잡으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들어선 '나의 앞을 막아서는
사랑'이라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 교훈과 책망으로 지혜롭고 유능하게 하시는 사랑

오늘 본문 11 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거부하지 말고, 가볍게 받지
않아야 합니다.

(표준새번역) 3:11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ESV) 3:11 My son, do not despise the Lord's discipline or be weary of his reproof,

13 절은 11, 12 절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11, 12 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13 절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아 훈계와
책망을 듣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표준새번역) 3:13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ESV) 3:13 Blessed is the one who finds wisdom, and the one who gets understanding,

이럴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따라하십니다)

♥ 나도 나 잘 되라고 꾸짖으시고, 책망하는 아버지 있다!

♥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아버지
있다!

♥ 나도 아버지 있다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2 Timothy 3:16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와 교훈은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딤후 3:17 절이 훈육의 목표입니다.

디모데후서 3:17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2 Timothy 3:17 that the man of God[b] may be complet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잠언으로 말하면 지혜자가 됩니다.

시 23:4,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길을 따라가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4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ESV) Psalm 23: 4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잠 22:6, 신앙이 어리고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잘하는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표준새번역) 잠언 22:6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ESV) Proverbs 22:6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even when he is old he will not depart from it.

이사야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표준새번역) 이사야 30:21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ESV) Isaiah 30:21 And your ears shall hear a word behind you, saying, "This is the way, walk in it," when you turn to the right or when you turn to the left.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고 징계를 해서라도, 나를 바로 세우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막아서는 사랑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더 지혜롭고 선한 일을 하기에 유능하도록 성장시키십니다.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썽쟁이이고, 고집쟁이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따라가고, 곁길로 자꾸 새고, 성장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ESV) Romans 8:28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어떻게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충분히 잘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제일 좋은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 의문에 대해서 37 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로마서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ESV) Romans 8:37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개역개정) 8: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ESV) 8:38 For I am sure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ruler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개역개정)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ESV) 8:39 no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꾸짖고 징계를 하신다면 좀 아파도 신뢰할만하지 않습니까?

2024 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서시며 때로는 고통을, 눈물을, 혹은 긴 기다림을 주셨다면, 2025 년에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유능하고 더 지혜롭게 빛으시기를 원합니다. 2025 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24 년을 돌아보고, 25 년을 준비하며

-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세상 길을 따라가려 할 때, 나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꾸짖으시고, 징계 하셔서 나를 돌이키고 바로 세워 주소서
- 세상 속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지혜롭고 유능하게 빛어 주소서